

일 주 문



일제시대 군산불교 주제 강연
군산 동국사 주지 종결 스님은 9월 24일 군산대박물관에서 '일제강점기 군산 불교'를 주제로 강연한다.



상담센터 수탁 협약식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조계종 마하이나 불교문화원 이사장 경희 스님은 9월 6일 대구수성구청에서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수탁 협약식을 개최했다.

국제선센터, 양천구 힐링캠프로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9월 16일 양천구청(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신종일 기자

영천울트라 마라톤 대회 성료



'제1회 영천 별빛 울트라 마라톤 대회'가 9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경북 영천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구불교방송이 주최하고 한국불자마라톤 대구경북 지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500여 명의 마라톤러들이 참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 비슬산 대견사 중창 상량식



대구 비슬산 대견사 중창 상량식이 9월 14일 봉행됐다. 이날 상량식에는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김문오 달성군수, 이종진 국회의원, 우동기 교육감 등 700여 대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힐링라이프, 상처치유 아이템”

연천 오봉사 주지 군맹 스님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불교에는 168개 종단에 5만 승려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계종이외에는 승려 교육 기관이 현실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 시대에 맞는 포교아이템이 제시되지 않는 한 우리 한국불교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현시대에 맞는 포교아이템을 제시하고자 ‘힐링라이프(Healing Life)’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경기도 연천 오봉사 주지 군맹 스님(사진)은 ‘힐링’이란 치유이며 ‘라이프’는 인생이란 말이니 힐링라이프란 인생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한다. 몸과 마음이 병 들듯 인생도 병이 드는데 몸과 마음은 의학에 의존해야 하지만, 인생이 병 들면 종교에 의지해야 한다는 게 군맹 스님의 지론이다. 그래서 힐링라이프는 종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처받고 갈등하는 인생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생이 병 들었다는 것은 업(생각과



사마타, 비파사나 등 3단계과정 스님들 힐러과정 이수후 활동가능

말과 행동)이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업장(業障)이 두터워진 상태를 말하지요. 불교가 제시한 수행법중 바로 팔정도(八正道)가 이 신구의 삼업을 닦는 비결이라는 것을 공부하며 깨닫게 됐습니다. 이 팔정도가 육바라밀로 변했으며, 또 이것이 오문(五門)으로 변했음을 알게 되

었죠. 그래서 오문에서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따오고 육바라밀에서 다나바라밀을 갖고와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과정은 우선 진단과 치유단계에서 사마타란 테마를 갖고 한시간 동안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떠올랐던 번뇌상상들을 바집없이 노트에 기록한다. 그리고 비파사나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라이프닥터와 상담한다. 마지막 다나바라밀 단계에서는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힐링라이프를 진행하는 힐러에는 주치유사인 라이프닥터와 보조치유사인 라이프코치가 있다. 라이프코치 양성과정은 3개월이고, 주치유사인 라이프닥터 양성과정은 3년이다.

“라이프코치의 3개월과정만 마쳐도, 우선 스님들이 각자 사찰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지만 3개월 과정을 더 추가해 인도·중국·한국불교사와 불교의 기초교리, 발심수행장 등을 통해 불교의 전반적 지식을 더 공부하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031)834-2140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서울 흥천사, ‘삼각선원’ 개원식



서울 성북구 흥천사(주지 정념)는 9월 14일 도심 선방인 ‘삼각선원(三角禪院)’을 개원했다.

삼각선원은 150명 대지에 건평 65평 한옥 두 채 규모다. 선원은 문화 예술인을 위한 힐링 장소로 이용된다. 이날 개원식에는 속초 신흥사 조실 오현 스님,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항적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교육원장 현웅 스님, 법등 스님, 보선 스님 등 스님들과 이수성 前 국무총리, 김희옥 동국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팝핀현준·박애리 부부 생명나눔홍보대사



비비이 팝핀 현준과 아내인 국악인 박애리 씨가 생명나눔 홍보에 나선다. 팝핀 현준 부부는 9월 16일 생명나눔실천본부 법인회의실에서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박애리 씨는 “8월 11일 만해대상 시상식에서 만해문예대상을 수상한 안숙선 명창을 축하하러 들렀다 캠페인 중인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며 인연을 맺게 됐다”며 “만해실천대상을 수상한 일면 스님의 활동에 공감한 남편도 함께 서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내은 기자

목탁 스님 미안마 돕기 캠페인 성금 전달



미안마문화원 원장 목탁 스님은 9월 16일 한남동 미안마대사관을 방문해 홀라인 주한 미안마대사를 접견하고 미안마돕기 캠페인 성금을 전달했다. 미안마문화원은 불자들의 성금을 모아 미안마 오지 우물파기, 빈민가 학교지원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홀라인 주한 미안마대사의 모교인 만달레이 지역 마다야 하이스쿨이 재정난으로 학교 수리조차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것이다.
노덕현 기자

“차문화 잘못된 인식 바로잡아 나갈 것”

문화융성위원 위촉된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차인으로서 전통문화 공인 최초 차문화 진흥 연구, 정책 제시 다짐

“전통문화의 일부로 차문화를 인정한 첫 사례이기에 차인으로서 기쁘게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전통문화로서 현대인들의 정신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차문화 발달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평생 차를 연구해 온 박동춘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사진)이 9월 5일 대통령 소속 정책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전문위원회의는 다양한 문화 현안을 조사하기 위해 문화예술, 문화산업, 전통문화, 문화 가치 확산 등 4개 분야에 걸쳐 위촉됐다. 전통문화분야 전문위원회는 10명으로 전통차 분야에서는 최초로.

박동춘 소장은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차는 다례를 위주로 알려졌다. 이제는 정신문화로서 대중화의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차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차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특히 대중들이 녹차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차가 냉하다면지 속을 깎아 내린다는 지 등 대중들은 현재 제다법이 잘못 쓰여 나온 폐단을 접하고 이를 그대로 한국차의 특색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차인의 길을 걸은 박 소장은 1985년 해남 백화사에서 조의선사의 차 맥을 이은 응송 스님(1893~1990)을 만나 전다계를 받고 그 맥을 이었다.

1990년 이후 순천에서 전통차 이론

정립에 나선 박 소장은 제다법에서 열탕법을 강조했다. 뜨거운 물을 부음으로써 차의 독소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우리 차가 어떻게 들어왔고, 왜 마셨는지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나하나 바꿔야 차문화 중흥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또 “우리 차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사람간의 소통을 돕고 심리를 안정시키는 등 정신문화를 향상시키는 매개체로 활용돼는 점을 연구해야 한다”며 “차문화 속에 담긴 정신을 알리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융성위원회 전통문화 전문위원회에는 불자인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지역문화), 김종록 소설가(문학)를 비롯해 김석중 경향신문 문화에디터(언론), 김영석 한복디자인(한복), 손혜원 홍익대 교수(공예), 송해진 숙명여대 교수(국악), 용호선 강원일보 논설위원(언론),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연구센터장(문화재), 황두진 건축사(한옥) 등이 위촉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불교조계종의 종풍은 계율청정한 율종의 가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의 진리를 포교하여 세계인들의 마음에 안심을 구현하고 세계질서의 평화로운 세계와 불국정토의 세계를 세우는 일에 주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정법 구현의 사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본 종단에서는 승려전문 노인 병원, 종단사업(건설, 출판, 홍삼, 기타사업 등)과 복지타운을 건립해 다양한 승려노후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총무원장 헤인 합장

입 중 및 사 찰 등 록 안 내

◆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 승적원부 (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 승적증빙서류 (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 사찰 전경, 내 외부 사진 각 1부
- 반 명함 사진 5매 (대가사를 수한 사진)

◆ 참고사항 ◆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총 무 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 135-887
● 총 무 국 : (02)511-2026~7 팩스 : (02)511-2028
● 종단사업부 : 02)549-1918

●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